

겨울호
2012. 12
NO.18
동물보호지

농가 로 나누는 사랑 312

Special

사람과 길고양이가 함께
평화롭게 살 순 없는 걸까?

Interview

영장류학자 제인 구달

우리 동네 길고양이 반려 스토리

동네 길고양이는
아이들의 절친입니다

현장에서

대선 후보님 '나라와 국민을 위해'
동물복지 공약을 제시해 주세요

또 다른 서선

고양이를 향한
우리만의 비전은 무엇인가



겨울호 2012. 12 NO.18

CONTENTS



03 여는 글

우리는 '희망'을 짓습니다

04 Special

사람과 길고양이가 함께 평화롭게 살 순 없는 걸까?

10 Interview

동물을 돕는 일은, 인간에게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영장류학자 채인 구달

14 우리 동네 길고양이 반려 스토리

동네 길고양이는 아이들의 절친입니다~

18 또 다른 시선

고양이를 향한 우리만의 비전은 무엇인가

20 요생역전

대박이와 대박이의 아옹이 동생들

22 현장에서

대선 후보님 '나라와 국민을 위해' 동물복지 공약을
제시해 주세요

24 노석미의 자연이 빛은 에세이

25 반려동물 문화캠페인

겨울철, 길고양이와 행복하게 공존하는 방법

26 동물관련 단신

겨울철 야생동물의 삶을 통해 되짚어 보는 공존의 의미

27 입양해 주세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28 활동 소식

8월부터 12월까지 동물자유연대 활동소식

30 행당포토뉴스

행당동 의기양양 밥당이들

31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32 올드독 동물기



함께 나누는 삶 계간지/2012. 겨울호

발행처 동물자유연대·(사)한국동물복지협회

주소 서울 성동구 행당동 307-18 전화 02.2292.6337 팩스 02.2292.6339

발행인 조희경 발행일 2012년 12월 20일 편집·진행 한송아 교정 박상미 표지사진 신승희

등록번호 성동비 00007 디자인·제작 Mayday GraphicStudio 인쇄 세원정밀인쇄

* 동물자유연대 매거진 <함께 나누는 삶>은 환경과 동물을 위해 재생종이 및 친환경공예를 사용합니다.

www.animals.or.kr

함께
나누는
삶
동물복지
살고

여는 글

우리는 ‘희망’을 짓습니다

글 조희경 대표

2012년 한 해 동안 동물자유연대를 후원하고 격려와 지지로 함께해 주신 회원님 및 동물친구들에 감사드립니다. 올 초 많은 다짐을 하고 출발했는데 그 때에 다짐했었던 만큼 잘해냈는지 조심스럽게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 준비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의 2012년을 되돌아보면 한국의 동물운동사에 길이 남겨질 일들이 여럿 있네요. 서울대공원에서 동물소를 하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바다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된 일, 남방큰돌고래들을 잡아 소를 하는 퍼시파랜드에 몰수형을 선고한 일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주 퍼시파랜드 관련 ‘돌고래 재판’을 두고 한겨레신문에서 ‘세기의 재판’이라 표현했을 정도로, 소하는 돌고래를 몰수하도록 재판부가 선고한 예는 국제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돌고래들이 건강을 되찾고 바다 적응 훈련을 마친 후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



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응원해 주세요. 그런가 하면, 올해부터 동물복지인증농장의 달걀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만 봤던 일이 우리에게도 실현되었네요. 동물자유연대가 2005년부터 농장동물 복지실태조사 활동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KBS <환경스페셜> 등의 미디어 노출과 캠페인을 통해 동물의 환경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함께 사회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며 활동해 온 결과입니다. 2013년부터는 ‘돼지 농장’에 대한 인종이 시작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염원과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2012년 한 해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동물보육원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신 후원의 손길에 힘입어 당초 계획대로 보육원을 착공했고 2013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동물보육원은 한국에서 가장 선진적이며 모범적인 동물복지보육원이 될 것입니다. 동물들이 겨우 생존만 하는 수용시설 개념의 기존 보호소를 뛰어넘어, 동물들이 따뜻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고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꿈과 사랑이 가득한 보육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동물보육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후에 만들어질 동물보육원들에게도 가능성과 희망을 주는 보육원이 되려 합니다.

잔인한 동물학대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큰 자괴감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지난 일들 하나하나를 돌아보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희망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도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읍시다.



Special 김고양이 이야기



모두가 외면했던 길고양이의 짧은 생애 대하여

어둑한 저녁, 음식을 쓰레기를 뒤적이다 인기척을 느낀 길고양이 한 마리가 후다닥 자리를 떠납니다. 길고양이의 토실한 몸집을 본 사람들은 '도둑고양이가 또 음식을 쓰레기봉투를 뜯어 길을 더럽힌다'고 말하며 '그러니까 저렇게 살이 쪼들'라고 화를 냅니다. 그들 중 길고양이가 살찐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버린 음식물의 강한 염분 때문에 신장에 병을 얻어 몸이 부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오해와 편견 때문에, 혹은 별 이유 없이 사람들은 길고양이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길고양이의 삶에 대해 조금만 더 알게 된다면 길고양이를 향한 못마땅한 시선은 많이 누그러질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길고양이가 함께 평화롭게 살 순 없는 걸까?

글 정전아 활동가·정책기획국



© 신승희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고양이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무관심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 중에는 길고양이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 거리를 더럽히고 밤마다 시끄러운 울음소리를 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존재, 그게 길고양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식이다. 평균 2, 3년밖에 살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는 길고양이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추위와 배고픔, 각종 사고와 질병보다도 길고양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다.

도심 속 길고양이의 고단한 삶

길고양이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사람들 주변에서 사람과 어우러져 살아온 동물이다. 오랜 시간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왔던 길고양이가 왜 갑자기 천덕꾸러기가 됐을까? 이는 주변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먹이를 찾지 못해 굶주린 길고양이는 사람들이 먹다 버린 음식을 쓰레기를 뒤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길고양이가 음식을 쓰레기봉투를 쫓아 거리를 더럽힌다며 불만을 토로하지만 길고양이 입장에서 보자면 그 행동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뿐이다. 실제로 정기적으로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지역에서는 길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뒤지는 일이 거의 없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에 반대하는 이들은 사람들이 고양이한테 밥을 주기 때문에 길고양이 개체 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역동물인 고양이 특성상 밥을 준다 해도 한 지역의 길고양이가 무한대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고양이는 밤을 때 발정을 겪는 '주간성 발정 동물'이다. 도심 속 길고양이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낮이 아닌 밤에도 내은산인과 가로등이 밝게 빛나는 도시에서 짝을 발정을 겪게 되는 것일 뿐, 사료를 잘 먹어서 새끼를 많이 낳는 것은 아니다. (경인일보 2012년 8월 10일자 기사)

수많은 편견과 오해 속에서 삶을 이어가는 길고양이가 유일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은 길고양이를 돌봐주는 캣맘들이 사료를 줄 때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마음 편한 시간이 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캣맘들은 따가운 시선을 피해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인적이 드문 곳을 골라 마음 졸이며 길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준다. 혹시나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다가 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들켜면, 일방적으로 호된 야단이나 욕설을 듣곤 한다. 분이 안 풀린 사람들이 길고양이에게 해코지를 하는 경우도 있다.

고양이 기생충? 역울한 길고양이의 사연

이처럼 거리를 더럽히고 시끄럽게 울어댄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길고양이는 얼마 전 '고양이가 기생충을 옮긴다'라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전염병 매개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됐다. 뉴스 보도에 등장한 고양이 기생충은 톡소플라즈마라는 기생충인데, 고양이 배설물을 통해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가능성이 극히 낮다. 게다가 톡소



플라즈마의 감염은 고양이를 매개로 하는 것보다 날고기, 생채소 등을 먹었을 때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은데도 뉴스에서는 고양이 기생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마치 모든 고양이 병균을 옮기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었다. 이 보도를 접한 동물자유연대는 곧바로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며칠 후 해당 방송사 뉴스에서 용어 선택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모든 고양이가 질병을 전염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만지만 해도 병이 옮을 수 있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길고양이를 비위생적인 동물로 여기게 되었다.

톡소플라즈마는 임신부 감염 시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감염 사실도 모른 채 지나갈 만큼 가벼운 질환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지난 20년 동안 톡소플라즈마에 태아가 감염된 사례는 단 두 건뿐이며, 아마지도 고양이로 인한 감염으로 보기는 어렵다. (책 <임신하면 왜 개 고양이를 버릴까> 권지형, 김보경 지음/채공장 다들여)

즉 실제로 국내에서 고양이로 인해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돼 문제가 일어난 정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런데도 '고양이 기생충'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길고양이를 전염병 매개체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건 옳지 않다. 심지어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집고양이까지도 키우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니 길고양이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TNR, 누구를 위한 선택일까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몇 년 전부터 국내에서도 TNR이 도입됐다. TNR은 길고양이를 안전하게 포획(Trap)해 중성화 수술(Neuter)을 시키고, 포획한 장소에 다시 방사(Return)하는 프로그램이다. 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현재 유럽, 미국 등의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길고양이는 영역동물로 한 지역의 고양이를 모두 포획한다고 해도 새로운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주변의 다른 고양이가 다시 유입되기 때문에 포획-안락사 방식으로는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도 TNR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TNR은 길고양이를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올해 7월 서울사에서 1kg도 되지 않은 새끼고양이들이 TNR된 채 사체로 발견된 사건은 국내 TNR 방식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TNR은 길고양이를 죽이지 않고 개체 수를 조절한다는 점에서 포획 후 안락사시키는 것보다는 인도적 방식이지만, 자칫 하면 길고양이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TNR을 시행할 때 다음과 같은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노원구 하계동 아파트 단지의 길고양이들.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길고양이 또한 사람과 공존해야 할 생명임을 인정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해 먹이를 주고 있다.





노원구 하계동 아파트 단지 곳곳의 고양이 보금자리. 캣맘인 선생님의 지도로 미술시간에 아이들이 길고양이를 보호하자는 포스터를 그려 붙여놓았다.

-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수유 중인 고양이를 제외한, 몸무게 2kg 이상, 수술을 건넬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되는 성묘만을 포획해야 한다(너무 어린 새끼 고양이나 체력이 약한 고양이는 수술 도중 혹은 방사 후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확률이 높다).
- ◆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수컷의 경우 하루, 암컷의 경우 사흘 정도가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수술이 제대로 이뤄졌고, 고양이가 살던 지역의 주민들에 의해 수술 후 관리가 가능하다면 영역에서 밀려내기 전 되도록 발리 방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다).
- ◆ 반드시 포획한 장소에 다시 방사해야 한다(포획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방사할 경우 영역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TNR이 동물 복지적 측면에서 제대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이런 고려 없이 길고양이를 잡아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 것으로만 끝낸다면 국내 TNR은 길고양이에 대한 단순 민원 해결 수단에 그칠 뿐이다. TNR이 올바르게 정착되려면 자자체와 동물단체 그리고 길고양이를 돌보는 지역 주민들의 공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원구 하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올해 3월부터 관리소와 주민들의 협조 아래 길고양이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마련해 줬다. 지금은 길고양이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지만, 예전에 이 아파트에서는 위생상의 이유를 들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한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그 지역 캣맘이 동물자유연대에 도움을 요청했고, 단체는 관리소 측에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다행히 해당 아파트는 이후 길고양이를 쫓아내는 대신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했다. 현재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길고양이 집과 먹이 주는 장소가 생겼다. 캣맘인 학교 선생님의 지도로 아이들이 미술시간에 길고양이 보호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를 그려 길고양이 보금자리에 붙여 놓기도 했다.

모든 사람이 길고양이를 좋아하고 이들을 돌보는 캣맘, 캣대디가 될 필요는 없다. 다만 사람들이 길고양이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을 돌보는 캣맘, 캣대디의 활동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우리의 생각이 조금만 변하면 우리 사회는 길고양이뿐 아니라 사람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동물을 돕는 일은, 인간에게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취재·정리 이형주 팀장 정책기획국

1960년, 스물다섯의 백인 처녀가 망원경과 공책 한 권을 들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곰베(Gombe)에 있는 침팬지 보호구역에 혼자 들어갔다. 그녀가 10년 넘게 그곳에 머물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사실을 발견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그녀는 화계의 전통을 깨고 침팬지들에게 번호 대신 이름을 지어 불러줬다. 게다가 그녀는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라는 당시의 상식을 뒤엎는 발견을 하게 된다.

세계적인 영장류학자이자 환경운동가, UN의 평화사절이기도 한 제인 구달 박사는 1년 365일 중 300일가량 세계를 누빈다. 박사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인간 동물'만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설파한다. 또한 어떻게 하면 '비인간동물'을 존중할 수 있는지, 왜 함께 조화를 이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가 11월 15일, 제인 구달을 만났다.



당신은 일생을 침팬지와 함께 살아왔다. 침팬지가 그토록 당신에게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침팬지는 다른 어떤 생물보다 인간과 유사하다. 생물학적으로는 98.6 퍼센트의 유전자가 일치하고 행동학적으로도 비슷함을 보인다. 침팬지는 60년을 살며, 개개인이 모두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침팬지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아기를 기르며 그 방법이 아기의 성장 과정과 성인이 된 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자로서 역사적인 압력을 아룬 뒤에, 환경보존 쪽으로 일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어떤 동기가 있었나?

연구를 시작했을 때 나는 대학 학위가 없었다. 그 이후 학사 학위 없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는 곰비 침팬지 보호 구역 안에 연구소를 만들어 매일 숲에서 연구하며 논문과 책을 썼다.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학자로서의 완벽한 일상이었다. 그러던 중 1986년 시카고에서 열린 큰 영장류 연구 학회에 참가하게 됐는데, 환경보존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아프리카 내 밀림의 감소와 사냥, 밀렵 등으로 침팬지의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장면을 보여 주는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쇼에 쓰이던 침팬지와 애완용 원숭이의 상태를 의학 연구소에서 연구한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 순간 의식적으로 어떤 결단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부터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유럽, 북미, 아시아까지 한 곳에 3주 이상 정착하지 않았다.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침팬지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생명들이 사라져 가는 이유는 다른 국가에서 침팬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놀라운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기 때문이었다.

아프리카의 환경파괴에 대해서는 항상 듣고 있다. 그러나 멀리서는 파부로 느끼기가 쉽지 않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유럽, 미국, 캐나다, 아시아의 국가들이 들어와 공사를 하고 도로를 만든다. 이를 통해 사냥꾼들에게는 밀림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제공된다. 또한 축산업 등의 대기업이 들어와 농지를 파괴하고 농사짓던 토착민들을 도시로 내쫓는다. 이런 변화는 침팬지 외에도 모든 야생 동물들과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하나로 연결돼 있던 밀림이 지금은 조각나 있다. 내가 처음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2백만 마라였던 침팬지가 이제는 30만 마리로 채 되지 않는다. 조각난 밀림에 있는 침팬지들의 교류가 완전히 끊기면 침팬지는 곧 멸종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연구를 시작하고 침팬지와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곰비 지역의 상황은 어떤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곰비는 국립공원이고 국가는 돈을 벌기 위해 여행객을 많이 유치하려 하는 반면에 관련된 법이나 규제는 엄격하지 않아서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모여든다. 규정상으로는 한 번에 6-7명의 여행객과 가이드로 이루어진 조 단위로 여행하게 돼 있다. 그렇다 해도 침팬지를 목격하면 그들끼리 라디오로 고신해 많은 그룹들이 모여들고 결국에는 아기 침팬지를 데리고 있는 엄마 침팬지 한 마리의 주변을 수십 명의 사람이 에워싸는 상황을 만든다. 정말 끔찍하다.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인데, 정부의 근시안적인 태도가 안타깝다. '좋은 동물원'과 '나쁜 동물원'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동물원은 모든 종이 '종의 특성'에 따른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알맞은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동물원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동물원이 야생 서식지의 대안일 수밖에 없다면, 동물원에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보나?

모든 동물에게 필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침팬지, 원숭이, 코끼리, 큰 고양잇과 등 지능이 높은 동물은 풍부화가 필요하다. 지루함은 이들에게 큰 고통이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알맞은 사회 집단이 제공돼야 한다. 오래전에 내가 풍부화에 대해 처음 소개했을 때 어느 동물원도 풍부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려 하지 않았다. 인력이 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에서 오랑우탄을 돌보던 사육사가 자진해서 시도하겠다고 했고, 그에게 당시 내가 고안한 '포도상자'를 사용하게 했다. 침팬지가 야생에서 아자열매를 먹을 때 손으로 찢어서 알맹이를 빼 먹는 원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포도를 먹도록 고안된 상자가 주어지자 오랑우탄은 바닥에 널린 먹이를 거부하고 오로지 상자 안에서 포도를 빼 먹는 일에 집중했다. 생각해 보라. 인간과 유사한 구조의 뇌를 가진, 기호문자를 배울 수 있고 키보드를 쓸 수 있는 침팬지가 텅 빈 케이지에 갇혀 어떤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사람을 감옥에 가둬 놓는 것보다 훨씬 처참하다. 이런 문제는 곰, 코끼리, 돌고래의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다. 동물원은 동물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사육공간의 제한은 어떤가? 호랑이, 사자 등 공간이 많이 필요한 동



물을 위해 사육 공간을 확보하려고 해도 그만큼 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 동물원이 사육할 수 있는 동물 중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가?

그런 경우에는 늑대 등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동물의 사육이 금지돼야 한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야행성 동물에 대한 처우다. 야행성 동물은 낮에 자야 하고 밤에 활동해야 하는데 동물원에서는 이런 본능에 따라 행동할 수 없다. 동물원은 동물이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동물만 사육해야 하고 만일 사육 공간이 좁다면 위로 기어올라갈 수 있는 구조물을 이용하는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중의 인식 변화다. 대중의 요구가 변화를 만든다. 정말 동물을 위해 변화하고 싶은 동물원이 많이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금이다. 이런 경우,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동물원과 함께 동물들의 처우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돌고래 제들이 같은 경우를 보라.

제들이 이야기가 나왔으니, 어제 서울대공원에서 제들을 본 소감은?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를 보는 것은 나에게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 그들을 바다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돌고래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이다. 어망에 걸렸다가 방류되는 고래의 영상을 본 적 있다. 한 살쯤 된 고래가 어망에 걸린 후 숨을 쉬기 위해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려고 안간힘을 쓰며 고동소리위하고 있었다. 지나가던 배에서 이를 목격하고 장비도 없이 팬 하나로 어렵게 어망을 끊어서 결국 고래를 풀어줬다. 그랬더니 해안처 가던 고래가 보트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약 10분 동안 물 위로 뛰어오르고 빙글빙글 돌며 친화와 축하의 세리마니를 선물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인간은 동물에게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또 한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어망에 걸린 고래를 여덟 명의 사람들이 풀어준 적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어망을 자르다가 고래의 눈을 들어다본 순간, 지금 이 고래가 지느러미를 한 번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공포감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망에서 풀려난 고래는 사람을 해치는 카령 지느러미로 한 명 한 명 부드럽게 건드리며 고마움을 표시한 뒤 헤엄쳐 갔다.

정말 놀랍다. 오랜 시간 좌초돼 있었으면 고통스럽고 체력도 많이 고갈돼 있었을 텐데.

고래는 인간과 감정을 교류하는 동물이다. 반대로 사람에 의해 포획될 때 가족과 분리되면서 그들이 겪을 두려움을 생각해 보라. 같은 무리의 돌고래들은 포획되는 돌고래를 구조하고 도와주려고 시도한다. 서울 대공원에 제돌이와 같이 있는 다른 돌고래들도 걱정이다. 이미 제돌이와 유대관계를 형성했을 텐데 다른 돌고래도 제돌이와 함께 바다로 돌아가야 한다. 제주 퍼시픽랜드에도 네 마리의 돌고래가 있다고 들었다. 절대로 이들을 포기하지 말아 달라.

우리나라도 이제 천천히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아직 고통받는 동물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일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비유하며 곡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인 구달 연구소(Jane Goodall Institute, 이하 JGI)에서 교사가 된 침팬지를 구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54마리의 어린 침팬지를 구조했다. 종종 사람들은 '왜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지 않고 침팬지를 돕느냐'며 비난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서양 국가에서 기부 받은 돈이 아프리카로 유입되고 있다. 동물을 돕는 것은 인간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되돌려주는 일이다.

의학 연구를 위한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봐선 당장 동물실험이 중단될 것 같진 않다. 실험실에서 고통받는 동물들 위해 장·단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정부 소유의 연구용 침팬지를 은퇴시키기로 결정했고, JGI와 협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동물실험이 중단돼야 한다. 보호구역(Sanctuary) 수준의 시설에서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등 동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험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의학계 종사자들이 동물실험이 의학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많은 대체실험법이 개발됐다. 동물실험에는 실험동물을 공급하는 업체부터, 케이지와 먹이를 만드는 업체 등 많은 이익집단들이 연계돼 있다. 예전에 이들은 '동물실험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대안이 많이 존재하는 지금은 '그래도 아직 일정 수준의 동물실험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실험을 대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대체실험법이 최대한 빨리 개발돼 동물실험 전체가 중단돼야 하고, 그때까지 실험에 쓰이는 동물에게는 가능한 한 최상의 처우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험실에서 동물이 겪는 고통은 실로 처참하고 또 끔찍하다.

당신이 쓴 책에서 농장동물들 '길들여진 노예'로 표현한 것을 읽고 같이 공감했다.

노예도 아니다. 강제 수용소에 갇힌 희생자들이다. 물론 돼지나 소에게



가해지는 학대 행위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들도 자신들의 건강에는 신경을 쓸 것이다. 지속적으로 투여되는 항생제는 면역성이 강한 박테리아를 생성시키고, 성장 호르몬은 어린이들에게 비정상적인 신체 발육을 가져온다. 농장동물의 먹이가 되는 곡식을 대량으로 기르기 위해 숲과 밀림이 파괴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대가를 오염시키며,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소비된다. 한 마리의 소를 기르기 위해 한 동네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곡식이 소비된다. 이런 모든 현상은 동물학대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다.

한국은 이제 막 동물복지에 걸음마를 떼는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동물과 올바른 관계 맺기를 시작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 말씀만 해 달라.

사람과 동물 사이에는 '명확한 선(sharp line)'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침팬지가 증명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물 왕국(animal kingdom)'에서는 사람만이 감정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지구를 공유하는 다른 동물에 대한 존중 정신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동물자유연대가 JGI와 연계해서 이런 메시지를 함께 알릴까 하면 좋겠다.

동네 길고양이는 아이들의 절친입니다~

글과 사진 김영미 고양이 협오자였다가 캣맘이 된 마흔 살의 아이 엄마이자 워킹우먼



우연히 길에서 길냥이를 마주쳤을 때 '하이쿠 예쁘다'를 연발하며 안아보고 싶어 하는 여자와 고양이를 보자마자 몸이 경직되어 가던 길을 돌아 자만치 피해 가는 여자, 세상에 이렇게 두 부류의 여자가 있다면 나는 완벽한 후자였다. 나는 고양이가 무서웠다. 무서워서 싫었다. 나를 뻔히 노려보는 눈동자는 어쩔지 두려웠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기다란 꼬리와 귀는 기괴했으며 '야아웅' 하는 목소리는 내 신경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아침에 일찍 사무실로 출근해서 어둑어둑할 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워킹우먼의 삶에서 고양이와의 조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기에 크게 문제되진 않았다. 어느 날 그녀가 길냥이를 집으로 들이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녀 J. 나에게서 파벌이 같은 존재인 그녀의 집은 언제라도 '언나'라고 부르며 찾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친정 같은 곳이었다. 그렇게 따뜻한 나만의 아지트에 어느 날 길냥이 한 마리가 들어오더니 시간이 흘러 길냥이가 네 마리로 늘어났다. 지금은 이렇게 답답하게 말하지만 처음 그곳에서 고양이를 봤을 때의 충격과 공포는 정말 대단했다. 난 고양이를 보자마자 피성을 지르며 뛰쳐나갔으며, 이후 그녀의 집을 방문하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유치원을 다니던 우리 아이가 그녀의 길냥이 덕분에 인간 외의 생명체에게 눈을 뗀다는 것이다. 동물 사랑이 지극했던 그녀는 아이에게 '고양이를 이렇게 쓰다듬어 봐라', '아빠나, 너를 이렇게나 좋아한다', '이마에 뽀뽀해 봐라'라고 말해주었다. 집으로 들어오는 차 안에서 '엄마, 우리도 제발 고양이 키워요'라고 울부짖는 아이와 실랑이하는 건 진땀을 빼야만 했다.

이러한 나에게 올해 너무나 큰 변화가 있었다. 내가 겪은 이 변화를 나누고 싶어서 서툰 글 솜씨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글을 쓰고 있다. 올해 나는 숨겨왔던 대가임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주중 하루를 쉴 수 있는 일을 선택했다. 이와 같은 선택을 했을 때 가까이 포기해야 할 부분이 많았지만, 마흔을 맞이한 나에게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다. 물리적으로 아침 출근시간에 어유가 생기자 십 년을 넘게 살아온 아파트 단지 이웃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또한 주중에 하루 어유가 생기니 동네를 둘러싼 성곽들과 오래된 골목들이 눈에 들어왔다. 해마다 무표정하게 바라보던 아파트 옆 나무의 검정 열매가 오더라는 것도 알게 됐다. 시간의 여유가 생기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나를 둘러싼 환경에 관심이 생겼다.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동네 길냥이를 만났다. 저녁에 운동을 하고 오는 길에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흰색 길냥이는 직감적으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보였다. 몸은 너무나 상해 있었고 털은 듚성듬성 빠져 있었다. 고양이를 무서워하던 나였는데 비쩍 마른 몸으로 새끼에게 젖을 먹이려 애쓰는 엄마 고양이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나 아파 '얘야, 너 이따다 큰일 나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를 보살피느라 늘 안간힘을 쓰던 나와 적박한 환경에서 새끼를 거두 먹이려 애쓰는 길냥이 엄마는 다를 게 없어 보였다. 이 길냥이는 예전에 내가 무서워하던 존재가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죽을



고양이는 원래부터 경계심이 많지 않았다. 훗날이리라 조상대대로 고양이를 싫어하던 한국 사람들의 편견에 의해 위협을 받거나 해코지를 당하던 고양이들이 제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피해 숨었던 것이다.



음식을 쓰레기 분리수거가 보편화되면서 도시의 길냥이들이 먹이를 찾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다. 많은 고양이들이 특히 흑한 거울칠에 먹이를 구하지 못해 죽어간다. 배고픔을 못 참아 바깥 봉투나 흙, 스티로폼을 먹고 죽은 고양이가 부지기수다.



추가적으로 먹이를 주니 경계심 없이 다가와 먹는 길고양이.



유치원 꼬마가 나타나자 기다리 달려 나와 꼬마를 반기는 새끼 고양이들. 무척 감동적인 장면이다.



길고양이 관련 책까지 동원해 고양이들 함께 돌보며 보고 있는 아들 이희준과 아파트 친구들. 생명의 존엄함과 소중함을 길고양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깨우치고 있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기 전하기부터 꺼내 들게 됐다. “언니 길냥이 엄마가 지금 죽을 것 같아!”

J 언니의 조언을 받아가며 엄마 길냥이와 새끼 두 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보살폈다. 고양이는 천성적으로 경계심이 강하다는 말을 듣고 살아왔는데, 이상하게도 엄마 고양이는 사람을 잘 따라서 내 발소리만 들어도 반가워하며 다가오고, 밥을 주고 돌아 나올 때면 멀리까지 따라 나와 배웅해 줬다. ‘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혹은 ‘와~ 나에게 고마워하는구나!’란 느낌이 녀석의 행동과 눈빛에 똑똑 묻어났다. 마흔이 되어 동물과 이런 교감을 나누게 되다니 정말 놀라운 감동이 물려왔고, 길냥이에게 밥을 주러 나갈 때마다 마음이 마냥 설렜다. 두 마리의 아가 고양이들도 사람을 아주 잘 따라서, 고양이를 키워 보는 게 소원이던 우리 아들은 덕분에 새로운 동물 친구가 생겼다. 아침에 등교할 때마다 고양이 있는 곳에 들러 사료를 주고, 깨끗한 물을 물통에 부어 주는 아들은 ‘도둑고양이다!’라고 생명을 향해 으름장을 놓는 또래 친구들에게 ‘이 고양이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 길에서 힘들게 사는 고양이들을 도둑고양이라고 부르는 건 옳지 않아!’라고 또박또박 설명한다. 유치원을 다니는 꼬꼬마 아이들은 비틀즈 멤버처럼 줄서서 다니는 길냥이 가족을 만날 때마다 깔깔거리며 무척이나 좋아한다. 서둘러 버스를 기다리던 할머니들 또한 ‘아이구야, 이렇게 컸구나!’ 하면서 예뻐하신다. 물론 아직도 예전의 나처럼 길고양이를 만날 때마다 깜짝 놀라며 길을 피해 가는 사람들도 있고, 사료를 주는 나에게 힐끗힐끗 눈치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과 길 위의 생명이 서로 보살피며 아낄 수 있는 풍경은 말로만 듣던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길냥이를 보살피는 사람이 우리만은 아니었다. 초보인 우리 모자 외에도 오랫동안 아파트의 길냥이들을 보살피며 온 모녀가 있는데, 이분들이 길냥이들 중성화 수술도 해주고, 올 겨울을 자넬 집도 튼튼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다.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는 요즘, 아이는 잠자리에 들면서 길냥이 걱정을 한다. 동생도 없이 혼자 크는 아이



흑한의 거울을 무사히 나리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갓맘 한 분이 러면 박스에 스티로폼과 담요를 넣어 집을 지어 줬다



좌 아파트 화단의 나무 위에 올라 새가 노는 걸 구경하는 고양이

우 음식 만들 때 국물 내는 용도로 쓰는 멸치, 버리지 말고 갈랑이들에게 주자

에게 마음을 쏟을 존재가 생긴 것이다. '화준아, 울 거울이 많이 출다지만 이 시간을 잘 넘기면 갈랑이가 가족 모두 더 튼튼해질 거야. 너 역시 그렇고...'라고 얘기해 준다. 무엇보다도 아파트라는 딱딱한 환경 속에서 건조하게 살아가는 도시아이일 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 길고양이로 인해 매번 무심히 지나치던 아파트 화단에 어떤 나무와 풀꽃이 자라는지 관심을 갖게 되고, 길 위의 생명도 사람과 똑같이 감정과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 기쁘다. 그들을 통해 어떤 생명이라도 생명은 소중하다는 걸 자연스럽게 깨닫고 있다는 걸, 약한 것들을 보호하려는 심리가 은연중에 싹 트고 있다는 걸 내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 경이로운 일이다.

갈랑이가 가족을 보살피면서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는 인간과 건물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학원 셔틀버스와 택배 차들만 있는 게 아니구나.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고, 사람과 길고양이 비둘기와 까치와 빌레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게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거로구나. 이렇게 함께 공생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로구나'란 사실을 새삼스레 깨닫게 됐다. 하늘 아래 살아가는 여러 생명체 가운데 하나인 인간이 군림하지 않고 다른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위보받고 보호받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식이라는 것 또한 절실히 깨닫게 된 한 해였다.

* 길고양이와 아파트 주민 간의 훈훈한 공생 이야기를 보내 주신 김영미(남성복구 돈암2동 한진아파트 거주)께 감사드립니다.

고양이를 향한 우리만의 비전은 무엇인가

글 김연중 수의사



우리는 어떤 범주를 통해 대상을 바라본다. 범주가 지닌 성격을 통해 대상을 이해하며 행동을 기대한다. 하나의 범주는 공통된 특성을 기준으로 형성되지만 반대로 범주를 향한 인식이 특성을 결정짓기도 한다. 한번 형성된 범주는 사고와 행동을 이끌며 이는 다시금 범주의 특성을 변화시킨다. 이렇듯 범주는 계속해서 변하는데 문제는 그 대상이 생명일 경우 본래의 권리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반려동물, 산업동물, 야생동물, 멸종위기동물, 유해동물 등 다양한 범주로 동물을 구분한다. 모두가 소중한 생명임에도 개와 고양이는 인간의 친구로, 소와 돼지는 용당 먹어야만 하는 음식으로, 멧돼지와 고라니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나쁜 동물로 여긴다. 같은 동물이라도 범주에 따라 다르게 대한다는 얘기다. 반려동물로 살아가는 개가 있지만 개고기로 생을 마감하는 개도 있다. 동물기본권을 위한 운동에서도 이러한 범주화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를 통해 그 차가운 이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도심에서건 한적한 마을에서건 유기동물 보기가 쉽지 않다. 지난 10여 일 동안 골목골목을 유심히 살폈지만, 온통 사람과 함께 있는 반려동물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물보호단체 'SPCA LA(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Los Angeles)'를 방문한 나는 그 이유가 고양이를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에 있음을 알았다. 우리는 길에서 사는 고양이를 보통 길고양이라 통칭하지만 이곳 캘리포니아에선 이들을 '길 잃은 고양이(Stray Cats)'와 '야생고양이(Feral Cats)'라는 다소 낯선 범주로 구분한다. 두 범주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① **길 잃은 고양이(Stray Cats)** 사람에게 적응한 고양이 주로 길을 잃거나, 버려진 혹은 집 주위를 거니는 외출고양이를 말한다.
- ② **야생고양이(Feral Cats)** 길 잃은 고양이나 다른 야생고양이를 사이에서 태어난 고양이 번식력이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사람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극도의 두려움이나 공격성을 보이는 고양이를 말한다. 야생고양이는 The California Food and Agriculture Code Section 31752.5(b)에서 법령으로 정의하고 있을 정도로 캘리포니아에선 확립된 개념이다.

길에서 사는 고양이는 사람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살아간다. 그럼에도 고양이 특유의 발정주기로 인해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한 쌍의 고양이가 번식을 시작하면 7년 후 42,000마리까지 늘어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를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바라본다. 이들은 고양이를 위한 그들 나름의 윤리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는 우리에게 다소 충격적이다. 바로 야생고양이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 물, 보금자리를 최우선적으로 제거하자는 것 뿐만 아니라 반려묘 중성화 수술을 법으로 의무화해 혹은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집을 나가더라도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LMBC 616.085 Unaltered Cats Prohibited). 또한 캘리포니아에선 TNR(Trap, Neuter, Return)을 행하



지 않고 있다. Animal Control에 의해 구조된 고양이는 길 잃은 고양이든, 야생고양이든 입양될 때까지 보호소에서 살아간다(캘리포니아는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결국, 길에서 고양이가 살아갈 기회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접근은 고양이를 혐오하는 이웃에게서나 들을적이다. 캘리포니아의 이러한 정책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듯하다. 지금 당장 한 마리 길고양이의 고통을 감수한다면 후에 적박한 도상에서 고통 받을 수많은 고양이가 생기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말이다. 우리 사회가 공유하지 못하는 야생고양이라는 범주가 이러한 사고와 행동을 더욱 가능케 한다. 이곳에서 야생고양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양이와는 다른 무엇이다.

이성적으로 그들의 논리를 어느 정도 수용한다 하더라도,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다. 어느 누구도 한 마리의 생명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의 예는 생명을 범주화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야생고양이는 다른 고양이와 확연히 구분되는 존재가 아니다. 물론 야생고양이가 반려묘보다 사람에게 공격적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음식, 물,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충분히 친화력을 지닐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길고양이가 가정에 입양되어 평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 않은가. 야생고양이라는 범주를 통해 다른 존재로 구분하기에 그들의 본

질이 너무나도 같다.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건 우리 인간의 의식뿐이다.

캘리포니아는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한 듯하다. 길 잃은, 혹은 야생고양이를 데는 보기 어려우며, 오직 소수 고양이만 구조돼 입양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적은 수의 유기동물이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든든한 후원, 그리고 안락사가 법으로 금지된 덕분에 청결하고 편안한 보호소에서 걱정 없이 지내고 있다. 하지만 오늘의 이러한 모습은 음식, 물, 보금자리 없이 길거리에 죽어간 수많은 동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치명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또한 개와 고양이가 야생성을 지닌 하나의 생명으로 여겨지지 못하고 '반려동물'이라는 범주에 철저히 속박된 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결과도 초래했다. 인간과의 공존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쓸쓸한 남길 뿐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모습이 마냥 부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 길에서 사는 고양이를 '길고양이' 혹은 '길냥이'로 통칭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새로운 범주가 이뤄질지도 모른다. 그 범주는 고양이를 바라보는 우리 사고를 나타낼 것이며, 또한 고양이를 향한 우리 행동을 결정할 것이다. 이 때문에 길고양이를 향한 지금의 행동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성원 모두의 공통된 가치를 담고 있는, 동시에 이들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좀 더 세련된 우리만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건 길 위의 생명들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고민이다. 개인적으로 TNR의 개선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묘생역전



대박이와 대박이의 야옹이 동생들

글 윤정임 국립 반려동물복지센터



2011년, 행당동 반려동물복지센터에서는 한뼘 서열 1위로 이름을 날리다가 이젠 이빨 빠진 노견이 되어 따뜻한 곳만 찾아다니는 안쓰러운 순둥이의 입양이 진행되었습니다. 순둥이의 입양은 7년 만에 성사된 것이라 그 기쁨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1년 뒤, 행당동에는 얼마 잃은 가여운 꼬물이 사 남매가 입소했는데요, 짚을 먹어 줄 고양이까지 동원해 꼬물이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제일 작고 약했던 막내는 별이 되었습니다. 막내가 하늘나라로 떠난 후 몽이, 짱이, 동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입양을 가도 될 만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입양을 진행하다 보면 한 뺨속에서 나고 자란 녀석들을 따로 보내야 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마어지곤 합니다. '끈끈한 우애로 톡톡 뭉친 녀석들을 함께 풀어 줄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 하고 있을 무렵 이제는 순둥이가 아닌 대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건생역전을 한 대박이네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바로 몽이, 짱이, 동이를 대박이의 동생으로 풀어 주시겠다는 소식이었습다.



대박이, 몽이, 짱이, 동이 입양자 정순희 님 인터뷰

세 마리를 한 번에 입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특별한 계기는 없었어요. 항상 동물자유연대의 활동에 관심이 있었지만 큰 도움이 못되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홈페이지에 올라온 몽이, 짱이, 동이를 보게 됐고 엄밀히 말하면 따로 떨어져 입양을 가야 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지요. 대박이에게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대박이가 썸이 많아서 다른 개들에게는 겁을 주지 않는 데 고양이인 몽이, 짱이, 동이와는 사이가 어떤가요?

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아닙니다. 몽이, 짱이 동이가 어렸을 때 왔기 때문에 대박이가 많이 돌봐 주는 편입니다. 물론 동생들이 많이 귀찮게 할 때는 으름장을 놓기도 하지만 하하~

한창 혈기왕성한 아기고양이들과 함께 생활하니 사간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 2주 동안은 온몸이 다 굶었어요. 또 새벽이면 세 마리가 온 집 안을 우당탕 뛰다니면서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어요. 구석진 곳은 모두 해집고 다녀 만지투성이 삼 남매가 되어버리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녀석들 덕에 꼼꼼하게 청소하는 습관이 생겼고, 오히려 더 부지런해져서 좋습니다.

집 주변의 길고양이들을 보살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집 근처 6개 구역에 있는 20여 마리의 길고양이를 돌보고 있어요. 하지만 루트하다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면서부터 길고양이들이 저희 집 고양이들과 비교가 되니 마음이 참 아프고 복잡해졌어요.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생명들이 주리지 않고 수영이 다하는 날까지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중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희망으로 힘든 마음을 추스르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밥을 챙겨 주는 것에 불편한 시선을 보내거나 방해하는 주민은 없었나요?

처음에는 몇 번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밥을 챙겨 주는 장소는 동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이 아닌 곳으로 정했고, 동네 어느 곳보다도 친절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밥 주는 것이 불법도 아닌 데다 그 주변 쓰레기까지 치우고 있으니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길고양이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세요? 어떻게 하면 이들의 고단한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상적으로는, 길고양이들이 배고프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으로는 부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60년대 중반 영국에서도 길고양이 문제가 심각했지만, 정부가 적극 나서서 대대적인 TNR을 실시했고, 이후 길고양이들의 삶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한 마리씩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TNR이 아닌, 단기간의 집중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정부 부처 동물, 생명권 분야에 의식이 있는 인재가 나와야 할 시기입니다.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가짐, 이전 번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님 ‘나라와 국민을 위해’ 동물복지 공약을 제시해 주세요

글 이기순 국정 정책기획국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선거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정책 결정자의 의지는, 우리 삶에 크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물자유연대 같은 시민단체의 활동에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에 전국 최초로 ‘동물보호과’가 신설된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동물자유연대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동물복지·동물권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고 없으면 요구해서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11월 7일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열린 동물복지정책 간담회

동물자유연대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 책임자가 되겠다고 나선 대통령 후보들에게 동물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정책 토론을 통해 공약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해 전방위로 노력했습니다. 주요 후보들이 결정되지마자 일찌감치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제안하는 동물복지정책 3대 방향 10대 과제를 발표한 동물자유연대는 대선 후보 캠프마다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뒤 찾아가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기본으로, 캠프 성격에 맞춰 개별 접촉을 하기도 했습니다. 20대 활동가들이 안철수 후보 캠프의 청년 정책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동물자유연대의 노력에 제일 먼저 응답해 온 것은 문재인 후보 캠프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 7일 문재인 선거 캠프 내담장이 카페에서 우리나라 대선 역사상 처음으로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재인 후보 부인 김정숙님과 시민캠프 최승국 환경/에너지 분야 담당 대표가 정책 책임자로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하나(환경노동위원회), 배재정(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두 현역 국회의원은 동물복지정책의 필요성과 제안 내용에 공감하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의정 활동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장하나 의원은 직접 '고래 포획 금지'를 주제로 발제를 맡기도 하셨습니다.

이 날 토론 내용에 대한 문제인 후보 캠프의 공식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전문은 홈페이지 참조).

1) 생명권의 시각에서 바라본 동물권

- 법률에서 동물의 권리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간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동물을 삶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삼겠다.
- 동물보호법과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갖추고 이를 목적에 맞도록 강화하며, 정규교육과정 등에 환경 교육과 더불어 동물보호 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

2) 반려동물 관련

- 반려동물의 번식, 판매업의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 또한 강화하겠다. 반려동물의 마트 판매와 인터넷 판매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겠다.

3) 야생동물 보호와 전시동물의 복지

- 야생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와 교육을 강화하겠다.
- 동물원과 같은 야생동물 전시시설의 환경과 복지상태가 개선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

4) 고래포획 금지

- '과학포경제척을 실현하고 고래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 '고래 쇼를 포함한 동물 쇼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5) 사육곰 정책

-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은 사육곰 증식을 중단시키는 것이며, 시민단체, 국회와 협력하여 곰사육 폐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6) 재난 시 동물 피해를 줄이는 방안 마련

- 동물들의 집단사육이 옳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축산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우선 밀집사육을 줄이기 위한 기준 마련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

문제인 캠프와 동물복지정책 간담회를 마치고 정확히 일주일 뒤인 11월 14일에는 안철수 후보 캠프와도 동물복지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대선 시기에 주요 후보 캠프에서 동물복지정책에 대해 토론한 것도, 대선 공약집에 동물복지정책이 정식으로 언급된 것도 이번 18대 대선이 처음입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이 성과가 동물권, 나아가 생명권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첫 걸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성과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동물자유연대 회원님들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테이트



한번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점이 아주 아름다운 얼룩배기 고양이 마가렛 꽃그늘에서 음가를 하려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걸 목격하게 되었다. 네 잘 만

났다, 나는 음가를 하기도 전에 쫓아버리려고 팔을 높이 쳐들고 뭐라고 악을 쓰며 다가갔다. 그러나 그 앞입도록 예쁜 고양이는 꼼짝도 안 하고 제 불일을 다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나를 뻔히 바라보았다. 눈부시게 흰 이마에도 윤기 나는 검은 점이 박혀 있었고, 그 밑의 두 눈은 금빛이었다. 그 금빛 눈이 비웃는 것 같았다. 너희들 인간은 먹기만 하고 싸지는 않냐? 그러면서,

나는 그 아름다움과 그 비웃음에 질려서 쫓아버리려던 손길을 슬며시 내려놓았다. 박완서의 <세상에 예쁜 것> 中

고양이건 개건 여러 마리 기르다 보면 그들이 저마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마치 사람을 만날 때처럼 동물을 만날 때 그들의 인상을 보고 나 혼자 속으로 판단을 하곤 한다. '음, 너 성깔이 좀 있겠구나, '넌 참 이자간해도 아무 생각이 없는 늑대로구나, '너 요즘 뭘 먹었나? 인상이 좀 바뀐다' 동등 보충 반라동물은 그 동물의 반라인과 비교하곤 하는 데 비해 나는 그 동물을 독립된 개체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물을 의인화해서 보곤 하는 것이다. 반대로 사람을 만날 때 (그간의 내 자신들에게 상당히 미안하게도) 사람을 동물, 혹은 식물(곤충도 있다)에 비유해 연상해 보곤 한다. 그리고 그런 연상을 즐긴다는 걸 고백한다(누워서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연상이 잘 된다).

물론,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생명체(사람을 포함해서)가 내 마음을 끄는 건 아니다. 나도 취향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취향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부끄럽다. 하지만 취향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사람의 경우, 동물을 연상시키다기보다 동물에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을 좋아한다. 특히 개(犬) 눈(目)을 가진 자를 좋아하는데 이런 내 취향에 대해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개 눈이 대체 뭐야? 차라리 고양이와 함께 사니 고양이 눈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엄밀하게 말하면 고양이 눈은 안 된다. 개 눈이어야 한다. "뭐야?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있냐고?" 있다. 적어도 내겐 말이다. 물론 드물지만 개 눈을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그와 사귀거나 좋은 만남을 이어가는 건 별개의 문제다. 이상형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것처럼 아무튼 난 개 눈을 가진 사람을 마음속으로 좋아한다. '돈도 안 드는데 뭐 이때' 하며 언젠가 그런 사람과의 좋은 만남을 소년처럼 꿈꿔보기도 한다.

혹시 자신이 '개' 눈을 가진 게 아닐까 하며 궁금한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길 바란다. 거기에 어찌든 수산화, 사마귀, 개동자뻥귀 혹은 음매 하는 것소가 있을지도 모른다.

2012년 11월 노석미



겨울철, 길고양이와 행복하게 공존하는 방법

글 정전아 활동가·정책기획국

길고양이의 삶은 언제나 쉽지 않지만, 겨울은 길고양이에게 특히나 힘든 계절입니다. 길고양이들이 울겨울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평소보다 조금만 더 길고양이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먹이와 물은 있

는지, 추위를 피해 자동차에 밀려 들어간 고양이가 있는지 관심을 약간 더 기울인다면 사람과 길고양이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과 길고양이는 신석기시대부터(alleycat.org 참조) 서로 이웃하며 살아왔습니다.

길고양이는 곡식 보관 창고나 어물전 등 쥐가 많은 곳의 쥐를 잡아먹기도 하고, 사람 손에 길들여져 집고양이로 함께 살기도 하면서 사람과 공존해 왔습니다. 이제 많은 지역이 도시화되면서 고양이의 먹이와 생활 습관도 변했습니다. 그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자연 요소와 마찬가지로 사람과 길 위의 생명들이 함께 살 수 있을 때 우리 인간의 삶도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와 전문가, 주민 그리고 자원하여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가야겠죠.

길고양이와 함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없진 않지만, 해결책도 있습니다.

음식을 쓰레기를 흘려놓아 거리가 깨끗하지 않아요

▶ 우리 동네에는 길고양이가 음식을 쓰레기 대신 길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사료를 공급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길고양이가 마구 늘어나지 않나요?

▶ 고양이의 무한 증식을 줄이고, 길고양이 영역 표시 냄새도 줄일 수 있도록 자발자차단체와 자원활동가들이 협력해서년부터 가을까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어요



겨울철 추위를 피하려 애쓰는 길고양이로 인해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길고양이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겨울이 되면 추위를 느낍니다. 그래서 따뜻한 곳을 찾아 건물의 후미진 지하실 구석으로 파고들지요. 경험이 없는 어린 고양이들은 열이 남아 있는 자동차 엔진룸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시동을 켜면 파하지 못한 어린 고양이가 끼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지하 주차장 구석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보이는 불빛에 놀라 뛰쳐나오다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과 고양이 모두에게 슬픈 일이지요.

check check



이런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공유할까 합니다. 길고양이들이 생명을 잃는 일도 예방하고, 자동차가 고장나는 일도 예방할 수 있어요.

- ① 자동차에 타기 전 여러 번 보닛을 노크하고, 출발하기 전 차 아래를 확인하세요.
- ② 주차장을 나올 때는 평소보다 더 서행하세요.
- ③ 지하실에 고양이가 몰려와 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문을 잠가 주세요.
- ④ 환기통에 길고양이가 들어가지 않도록 철망을 이용해 입구를 막아 주세요.

겨울철 야생동물의 살을 통해 도져어 보는 공존의 의미

글 김지영 활동가 정책기획국

9,736. 이 숫자는 올해 강원도 내 7개 시군에서 수렵이 가능한 멧돼지 수다. 여기에 고라니 4,712마리와 청설모, 꿩, 멧비둘기 등을 포함하면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날이 쌀쌀해지면서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도심 출현 기사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기사는 대부분 사람이 입은 피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자체에서는 겨울철이면 야생동물 피해 대책을 내놓는다. 그런데 이 역시 별반 다를 게 없다. 인가에 자주 출몰하는 야생동물을 유해조수로 지정해 수렵하기를 내줌으로써 개체 수를 조절하거나 전기 울타리, 울무 등을 설치해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는 등이 고작이다. 이런 방법들은 당장의 피해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인가로 내려오는 야생동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겨울철 인가 출몰이 가장 잦은 동물은 바로 멧돼지다. 멧돼지는 도대체 왜 인가로 내려오는 걸까? 첫째는 먹이 때문이다.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벌목으로 멧돼지의 주식인 도토리 등을 이제는 산에서 보기가 힘들어졌다. 그나마 조금 남아 있는 도토리도 등산객들이 오가는 길에 모두 주워가 버린다. 겨울을 나기 위해 에너지를 비축해야 하는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 결국은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 농민들의 한 해 농사를 망치기 위해서도,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단지 살기 위해서다. 둘째는 서식지의 파괴와 단절 때문이다.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행동반경은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의 편의만을 위해 택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야생동물 서식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거기다 산하리를 관통하는 도로를 건설하고, 여기저기 등산로를 내다보니 도로와 산길을 구별하지 못하는 멧돼지들이 이동 중에 길을 잃는 일이 빈번하게 생긴다. 이렇게 길을 잃어 로드킬(Road Kill, 동물이 길가나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는 일) 당한 야생동물의 수가 작년 한 해만 2,307마리에 달했다.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은 야생동물의 먹이와 이동경로 확보, 서식지 보존 등을 위해 생태통로 건설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생태지형적 산림복원을 원칙으로 삼고 과학적 조사를 통해 생태통로를 조성함으로써 사람과 동물 모두를 보호하는 공존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국에 370여 개의 생태통로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야생동물의 서식실태나 종합적인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여주는 식의



로 조성된 곳이 많아 생태통로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수십억 원을 들여 건설했음에도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채 방치된 곳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산책로로 이용해 야생동물의 서식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많다. 심지어는 도로와 인접한 곳에 조성돼 로드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애당초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터전과 먹이를 빼앗고 그들을 도심으로 내몬 것은 사람이다. 이들에게 먹이와 서식지를 되돌려주려는 근본적 노력 없이 포획 등의 임시방편만 되풀이해서는 동물은 물론 사람도 행복할 수 없다. 먹이를 찾아 내려오는 야생동물에게 유해조수라는 낙인을 찍어 살상하고, 사람이 입은 피해 대책만을 논하기 전에 야생동물과 사람의 불편한 조우를 아끼한 것이 바로 인간임을 자각해야 할 때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안락한 집과 반듯한 도로, 수확철을 거쳐 창고에 가득 쌓인 곡식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먹이를 찾아 인가로 내려오는 그 동물들과 자연으로부터 취한 것이다. '야생동물에게 서식지를 되돌려주자'는 목소리가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만 들린다면, 올 겨울 산에서 도토리를 줌이 없는 것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 멧돼지가 야생에서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토리를 남겨 두는 작은 배려가 사람과 동물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한 씨앗이 되기를 바라본다.

입양해 주세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글 손혜원 활동가 반려동물복지센터



왕눈이



눈총이



눈총이(좌)
왕눈이(우)



뚝뚝이

행당동 반려동물복지센터에는 아픈 동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사소하게는 피부병에서부터 심각하게는 교통사고로 골절을 입은 동물, 종양으로 수술 받은 동물, 안구질환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는 동물들까지. 동물들은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반려동물복지센터로 왔지만, 상처가 있다는 점은 모두 같습니다.

얼마 전 반려동물복지센터로 들어온 '뚝뚝이'. 뚝뚝이는 자신을 키워 주던 견주가 죽자 갈 곳이 없어 동네 주민이 동물병원으로 안락사를 의뢰했던 사연을 가진 녀석입니다. 나이가 많고 양쪽 눈의 시력을 모두 잃어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뚝뚝이를 보호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안락사를 의뢰받은 병원이 동물자유연대 협력병원에서 뚝뚝이가 저회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뚝뚝이는 행당동에서 다른 동물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분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몸이 아파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은 입양을 꺼리는 분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입양을 못하고 센터에 머무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앞이 보이지 않는 아이들은 더욱 외면 받습니다.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애고 많은 이 아이들은 보는 게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 눈으로 보지 못할 뿐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를 눈이 아닌 마음으로 봐주세요.'

눈이 아닌 마음으로 동물들을 바라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동물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동물들의 눈이 되어 평생 함께할 가족이 되어 주세요.

활동소식

2012년 8월 ~ 2012년 12월



현대백화점 동물체험전 규탄 기자회견

8월 14일, 동물체험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현대백화점 목동점 앞에서 실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성명서 발표, 자유 발언, 철창 안에 갇혀 전시되는 동물의 고통을 표현하는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현대백화점에 동물체험전 중단,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도 전시동물의 복지를 위해 입법추진을 포함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TV 동물농장> '보길도 누렁이판'에 방송되었던 누더기견 구조

8월 19일 방송을 통해 보길도 누더기견에 대해 알게 되자마자 구조에 나서, 하루 만에 성공했습니다. 경계심이 많아 구조에 애를 먹었던 녀석은 '술이'라는 이름을 얻고, 심장사상충 치료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매우 발랄한 성격의 술이는 행당동 반려동물복지센터에서 평생 가족을 기다리며 친구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예쁘고 씩씩한 술이 부모님, 어디 계신가요~



'행복한 돼지' 캠페인

9월 27일, 공장식 축산으로 고통받는 돼지의 현실과 그로 인해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문제점을 일리고, 어미돼지 스물 사육 금지를 촉구하는 '행복한 돼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60cm 폭의 좁은 공간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어미돼지의 현실을 보고, 농장동물의 사육환경과 함께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어야 함을 많은 분들이 함께 느끼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더바다샵의 글로벌 나눔 캠페인 참여

더바다샵의 글로벌 나눔 프로젝트 참가 단체로 선정돼 9월부터 나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캠페인 기간 동안 더바다샵의 서울 10개 매장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분에게는 기부 토큰이 주어집니다. 이 토큰을 동물자유연대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투표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기부 받습니다. 더바다샵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화장품 동물실험의 비인도성과 불필요성을 일러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희망서울정책박람회' 참여

10월 13일, '동물과 사람 모두가 행복한 서울'이라는 주제로 희망서울정책박람회에 참가한 동물자유연대는 서울시 반려견운동공원 설치를 건의하고, 바람직한 길고양이 TNR 시행을 위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들어 동물 보호과를 신설하고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하는 등 동물 복지를 위한 정책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우리의 요구가 더해진다면 훨씬 살기 좋은 서울시가 될 것입니다.



생명 경시 조장하는 이마트 몰리스 펫샵 동물판매 중단 촉구

동물자유연대는 9월부터 ㈜이마트 몰리스 펫샵 동물판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60일 형 미만의 개를 판매해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개점(대전 월평점, 대전 테마날점, 분당점)을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위 3개점에 대해서는 1차 적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만 내려졌고, ㈜이마트 몰리스 펫샵은 생명 판매를 중단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동물자유연대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물수형 선고

12월 13일, 퍼시픽랜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폐사한 남방큰돌고래 해수어를 포함한 남방큰돌고래 다섯 마리에 대해 물수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은 유죄를 인정하고도 몰수 집행의 요건을 교묘히 이용해 돌고래 공연을 계속해 온 퍼시픽랜드의 책임을 엄중히 따지는 당연한 결정입니다. 퍼시픽랜드가 상고를 포기하고 남방큰돌고래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데 협조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민주당합당 대선 후보 공약에 동물복지 내용 포함

12월 9일 발간된 문재인 후보의 최종 정책공약집에 '동물생명 존중 사회 구축'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사람이 먼저인 사회입니다. 반려동물 번식과 판매업 기준을 강화하여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겠습니다. 포경 금지 정책을 유지하고, 고품 사육 폐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재난 시 동물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구제역과 같은 상황 발생 시 가축의 생애장을 금지하고 인도적 도축을 실시하겠습니다.'



화장품 동물실험 반대 사이트 'BNB' 오픈

화장품 동물실험 반대 캠페인의 온라인 소통 공간인 'Be Nice To Bunnies' 토끼를 아껴주세요(www.benicetobunnies.org)를 개설했습니다. BNB는 화장품 동물실험과 대체실험법,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브랜드의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소비자와 기업이 동물실험을 두고 서로 소동하는 장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화장품 회사에 동물실험 중단 요청이 매일 보내기, 동물실험 반대 서명하기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담겨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센터 착공

동물복지센터 공사가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11월 8일 착공식을 했고, 2013년 5월 30일 준공이 목표입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조언을 바탕으로 설계했고, 보호동물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조금 더 힘을 모아 무사히 완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당동 의기양양 밥냥이들



글 윤정임 국장 반려동물복지센터



행당동 반려동물복지센터에는 대대로 저희가 챙겨주는 밥을 먹으며 나고 자라는 고양이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행당동 밥냥이들'입니다. 이 그룹은 길냥이들의 짧은 수명 때문에 2~3년마다 구성원이 바뀌는데요. 최근 1년 간은 밥냥이들의 우두머리인 노국이를 주축으로 노국이의 여자친구 노순이와 흰숙이, 그리고 흰숙이의 아가들이 이 그룹을 점령했습니다. 바야흐로 '노국이 왕국'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밥은 얻어먹지만 걸은 절대 주지 않는다'는 철칙이 분명한 행당동 밥냥이들을 소개합니다. 노순이와 흰숙이가 종성화 수술을 받았고, 곧 노국이도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 노국이 왕국의 전성기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국이와 노순이, 그리고 흰숙이를 오래오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동물자유연대는 모든 동물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게 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인간에 의해 이용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동물의 수와 종을 줄여나감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윤리적 조화와 상생을 도모한다는 목표로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 구조 및 입양, 학대 현장 조사,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동물학대 예방 캠페인, 국제 동물복지 컨퍼런스 개최, 국제 연대, 동물복지 연구 조사 활동, 동물복지 정책 협력 및 자문(정부기관 및 다수의 언론기관) 등

반려동물 유기동물의 증가를 막기 위해 중성화 수술 캠페인과 재입양 캠페인을 진행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강화 운동과 올바른 양육 정보 제공을 통해 반려동물 복지를 향상토록 합니다.

농장동물 공장식 축산업으로 인해 고통받는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비인도적인 사육 방식을 금지하고, 농장동물의 사육과 운송, 도축 과정에서 동물이 받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캠페인과 입법을 추진합니다.

실험동물 실험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실험성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역할을 촉구하고, 최상품을 비롯해 불필요한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이 없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락동물 동물이 유흥과 오락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미디어에 나오는 동물을 모니터링 하여 학대 요인을 방지하며,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의 복지를 위한 캠페인과 입법을 추진합니다.

★ 동물자유연대와 함께하면!

동물자유연대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법인에서도 소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후원 회원으로 등록하시면 분들에게는 매일 뉴스레터와 동물보호 제간지를 발송해드립니다.

★ 후원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학대동물 구조 및 보호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오락동물 등의 동물복지 캠페인 활동, 동물보호원 건립, 동물보호법 및 관련 제도의 강화 요구 활동 등에 사용됩니다.

★ 어떻게 후원할 수 있나요?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animals.or.kr로 접속해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달 정기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으로 조성된 후원금은 동물자유연대의 사업을 더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계좌 **국민은행** 806201-04-005468
농협 015-17-002592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문의 T. 02-2292-6337 F. 02-2292-6339
 E-MAIL admin@animals.or.kr

*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는 '동물자유연대'의 법인 명칭이며,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올드독 동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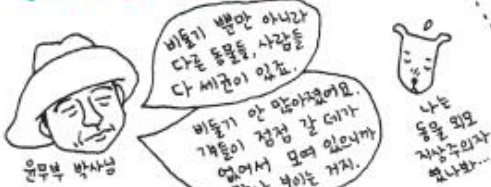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돌아오다가
비둘기에게 밥을 주는 아주머니를 목격하고
경악한 다음, 그런 일에 경악하는
나 자신을 자각하여 또 경악합니다.



* 죄송합니다. 저의 동물보호
인식 수준은 고작 이 정도였나 봐요...

하지만 비둘기는 어떨까?
귀엽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면 길고양이와
대등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고양이 걱정은 하면서도 비둘기를 꺼려했던
나는 자연과의 공존을 위해 고양이 밥을
준 것일까, 그냥 귀여워서 준 것 아닐까?



아무 데서나 먹어 주는 건
삼가야 되겠지만...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의 도덕적 딜레마에
극복한 인류동물학자 할 헤르조그는
이렇게 썼다.



우리가 길고양이를 돌보는 데는 나름 확실한 이유와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 편이다.

① 인간과 길고양이는 선악기 시대 때부터 이웃이었다.



그들 역시 도시 문명에
살의 터전을 빼앗긴
동물의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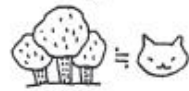
② 그러므로 인간의 편익을 위해 해쳐선 안 되며,
자연의 일부로 보호하고 관리해줘야 한다.



③ 사료를 공급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뒤지는 걸 막을 수 있고,
중성화 수술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④ 따라서 길고양이를
돌보는 건 도시에 돌을
가득한 것과 비슷한
활동이다(라는 주장은
좀 무리인가?).



귀여운 동물에게 귀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 어찌할 순 없겠지만, 귀엽지 않은
동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우리 행동의
진정성이 판가름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OLD DOG.KR